

 <b>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</b> <span style="float: right;">다시,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</span>			
보도 일시	배포시	배포 일시	2022. 7. 4.(월) 배포시
담당 부서	개발금융국 국제기구과	책임자	과 장 이상규 (044-215-8720)
		담당자	사무관 유연정 (044-215-8724)

**중미경제통합은행(CABEI),  
한-중미 경제협력을 위한 CABEI Korea Week 개최**  
- 한국 공공기관 및 기업들의 투자설명회 등 포함 -

- 중미경제통합은행(CABEI\*)는 7.5(화) ~ 7.11(월)간 부산·울산·서울에서 한-중미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행사인 CABEI Korea Week를 개최할 예정이다.
  - \* Central American Bank for Economy Integration : 중미 균형개발 및 경제통합에 대한 투자를 위해 '60년 설립된 다자개발은행 (현재 15개 회원국)
  - CABEI는 중미 인프라 투자에 가장 많은 자금을 공급하는 지역다자개발은행으로, 우리나라는 '19.12월 15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영구 이사직 수입 중이며,
    - \* 중미 최고 수준의 신용등급(AA, S&P) 및 인프라 투자 관련 전문성을 바탕으로, 대출 86.2억불 공급 (중미지역 다자개발은행 투자의 43%, '21)
  - EDCF 협조융자, 한-CABEI 협력기금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한-중미 경제협력을 공동 추진하고 있다.
  - 이번 CABEI Korea Week 참석을 위해 총재, 부총재 및 11개국 이사 등 핵심인사 40여명이 방한하였다.
- 금번 CABEI Korea Week은 ❶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, ❷산업 시설 시찰, ❸한-중미 네트워크 만찬 및 ❹한-중미 협력포럼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, 2030 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, 대한상공회의소, 한·중남미 협회, 공공기관\* 및 기업\*\*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.
  - \* 국가철도공단, 코레일, 부산항만공사, 가스공사, 한국전력, 발전 5사, 국립부산과학관 등
  - \*\* 현대자동차, 현대중공업, 현대로템 등

- CABEI Korea Week의 첫날인 7.5(화) 2030 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와 부산광역시시는 홍보설명회를 통해 '세계의 대전환,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' 라는 부산세계박람회 컨셉을 홍보하고, 박람회 유치에 대한 중미국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CABEI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.
- 이어 7.5(화)~7.6(수) 양일간 부산 및 울산에서 항만물류·수소경제·철도 인프라·친환경선박 등 신산업 분야 산업현장 시찰과, 각 분야의 선도적 기술을 보유한 공공기관 및 기업들의 투자 설명회가 진행된다.
  - 부산항만공사는 「On-board 선상 항만인프라 수출상담회」를 진행하여, 세계 2위 환적항만인 부산항의 항만인프라 관리기술을 소개하고 친수 공간과 복합도심시설로 재개발 중인 북항 일대를 시찰한다.
  - 한국가스공사(국립부산과학관, 현대자동차 협조)는 「Clean Hydrogen Experience with KOGAS」에서 수소전기차 시승식을 통해 수소경제의 친환경성 및 경제성을 현장감 있게 홍보하고, 충전소·생산기지 등 관련 사업 추진현황과 해외 진출계획을 선보인다.
  - 국가철도공단(코레일, 현대로템 협조)은 울산-서울간 KTX 객차 내에서 진행되는 「On-rail 철도수출 워크숍 및 투자상담회」에서 한국의 철도기술 및 철도차량, 도시철도 시스템, 해외 사업현황을 소개한다.
- 7.7(목) 「한국에너지공기업 중미진출 지원 워크숍」(18:30, 여의도 콘래드)에서는 한국전력 및 발전 5사의 해외사업 담당자가 참여하여, 기관별 관심국가의 CABEI 이사 및 사업담당자와 사업계획 및 애로사항을 공유할 예정이다.
- 7.8(금) 대한상회가 주관하는 「중미경제통합은행(CABEI) 고위급 초청 네트워킹」(18:30, 여의도 콘래드)에서는 중미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애로 해소와 한국기업-CABEI 인프라 투자 담당자간 정보교류를 위한 만찬 개최 예정으로, 70여개 중미 진출기업\* 임직원 80여명이 참석한다.
  - \* 포스코건설, 현대엔지니어링, 현대건설 등 주요 인프라기업 및 중미진출 중소기업 70여개社

- 7.11(월)에는 한·중남미협회와 공동으로 「한-CABEI 협력포럼」\*(15:00, 여의도 콘래드)을 개최할 예정이다. CABEI 공공, 민간개발 국장 및 한국 신탁기금 담당자가 직접 진행중인 프로젝트 및 참여방식을 설명\*\*하고, ICT 세션을 통해 한-중남미 스타트업 기업들간의 협력방안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.

\* CABEI-KCLAC Forum 2022: Promising Industries for the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entral America

- \*\* ① 공공개발국장(Manuel Torres) : 물류·에너지인프라 등 공공개발 프로젝트 소개  
 \*\* ② 민간개발국장(Carlos Gomez) : 제조업·농업중미지역 민간기업 투자프로젝트 소개  
 \*\* ③ 신탁기금 관리자(Rigoberto Romero) : 한국신탁기금 사업절차 및 입찰방법 소개

- 또한 CABEI Korea Week 기간 중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(KIND), 한국환경산업기술원(KEITI)등 국내 기관과 CABEI간 MOU 체결을 통해, 한국기업·기관의 중미지역 진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충할 예정이다.

※ [참고] 참여기관별 연락처

기관명	담당자	연락처
중미경제통합은행(CABEI)	김건민	010-8868-3531
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	유영섭	02-2036-9843
부산광역시	이수정	051-888-7763
부산항만공사	이용혁	051-999-2100
한국가스공사	이재훈	053-670-0621
국립부산과학관	신경진	051-750-2350
국가철도공단	황희정	042-607-3422
한국전력	양정훈	061-345-7036
대한상의	조민애	02-6050-3555
한중남미협회	한중남미협회	02-539-4871

참 고

중미경제통합은행(CABEI) 개요  
 [Central American Bank for Economic Integration]

- (설립) '60.12월, 중미 5개국\*이 지역 균형개발 및 경제통합에 기여하는 공공·민간투자 지원을 위해 설립(본부: 온두라스 테구시갈파)  
 \* 창립회원국(5개): 엘살바도르, 니카라과, 온두라스, 코스타리카, 과테말라

- 중미 8개국\* 연합기구인 중미통합체제(SICA, Sistema de la Integración Centroamericana)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며, 핵심가치\*\*를 공유  
 \* 온두라스, 엘살바도르, 니카라과, 과테말라, 코스타리카, 파나마, 도미니카(공), 벨리즈  
 \*\* 민주적 안보, 기후변화 및 리스크 관리, 사회적 통합, 경제적 통합, SICA 역량 강화

- (자본금) 수권자본금 70억불, 납입자본금 약 17.5억불(25%)

- (총재) 단테 모씨(Dante Mossi), 국적 온두라스('18.12.1일 취임)

- (회원국) 현재 15개국이 가입 중이며, 한국은 총 6.3억불(가입 시 4.5억불\* 출자, 이후 1.8억불\*\* 증자) 출자하여 전체 7위 투표권 보유  
 \* 4.5억불 중 납입자본금 1.125억불을 외환보유액으로 4년 간('20~'23) 분할 납입  
 \*\* 1.8억불 중 납입자본금 0.45억불을 외환보유액으로 8년 간('20~'27) 분할 납입

< CABEI 회원국별 지분율/투표권 비중 ('22.4월 기준) >

역내국 (8개)	엘살바도르(10.20/10.73%), 코스타리카(10.20/10.73%), 온두라스(10.20/10.73%), 니카라과(10.20/10.73%), 과테말라(10.20/10.73%), 도미니카(공)(5.41/4.99%), 파나마(5.12/4.81%), 벨리즈(0.36/0.34%)
역외국 (7개)	대만(11.09/11.42%), 한국(9.00/7.63%), 멕시코(4.38/5.00%), 스페인(4.00/4.21%), 아르헨티나(4.37/4.25%), 콜롬비아(2.90/3.05%), 쿠바(0.71/0.64%)

\* 밑줄 : 이사국(총 12개국), ■ : 영구이사국 / 아르헨-콜롬비아 : 공동 이사실 구성

- (이사회) 현재 12개국이 이사직 수임  
 ○ 창립회원국: 과테말라, 엘살바도르, 니카라과, 코스타리카, 온두라스  
 ○ 비창립역내회원국: 파나마, 도미니카공화국  
 ○ 역외회원국: 대만, 한국, 멕시코, 아르헨티나/콜롬비아, 스페인

- (주요 사업) 인프라·에너지 분야 사업 승인이 50% 이상

- ('20년 승인 규모) 9개국\* 26개 사업 대상 총 34.6억불  
 \* 과테말라, 엘살바도르, 온두라스, 니카라과, 코스타리카, 파나마, 도미니카, 콜롬비아, 아르헨티나